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언론 토크아보기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301호

전화 051-802-0916

홈페이지 www.bssim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

●문서번호	지역언론토크아보기2021-026
●수 신	각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
●발 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제 목	부산일보 사장-건설사 대표 유착의혹 보도 이후, 여전히 아쉽다
●날 짜	2021년 10월 15일

부산일보 사장-건설사 대표 유착의혹 보도 이후, 여전히 아쉽다

지난 10월 12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 수사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부산일보 사장과 미래전략사업단장이 자사의 독자위원이자 부일CEO아카데미 원우인 김은수 동일스위트 대표로부터 제의 받은 사모펀드에 각각 1억원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 40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보도 이후 40일, 지역언론은 부산지역에서 75년 역사를 이어온 대표 신문사와 천혜의 자연을 마주한 땅에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자본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10월 12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지역언론의 ‘부산일보-건설사’ 유착 의혹 관련 보도를 토크아봤다.

부산일보 사장 수사의뢰, 부산일보는 보도 않았다

먼저 부산일보는 자사 사장뿐 아니라 미래전략사업단장이 건설사 대표와 투자공동체를 형성했고, 공공롭게도 해당 건설사 추진 사업에 우호적 논조로 일관해 권력 감시를 방기한데 대해 단 한 차례도 보도하지 않았다. 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다.

10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등이 경찰에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 수사를 의뢰한 사건도 역시 보도하지 않았다.

‘부산일보 사장 수사 의뢰’는 보도하지 않았지만, 9월 5일 의혹이 드러난 이후에도 부산일보 지면에 김진수 사장이 등장했다. <부산일보 창간 75주년 맞아 40년 근속 지국장 격려>(9/13), <부일여성 대학 동문회, 부산일보 배달원 자녀 돕기 성금>(10/6)과 같은 ‘좋은 소식’에서였다. 김진수 사장이 기사의 주체가 아닌 ‘사람과 이웃’면에 게재된 단순 동정보도라고는 하나, 유착 의혹이나 수사의뢰 기자회견보다 기사 가치가 높은 것인지는 의문이다.



부산일보 75주년 맞아 '40년 근속 자국장' 시상

부산일보사(대표이사 사장 김진수·기문 대)는 창간 75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본사 5층 집현실에서 창간 기념 40년 장기근속 자국장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지난 40년 동안 부산일보 자국을 운영해온 여대원(왼쪽 두 번째) 부산 대외지역 지역장, 박태환(왼 오른쪽) 대구지역 지역장, 박종익(왼 번째) 영지지역 지역장, 윤석보(왼쪽 네 번째) 경남 중영지역 지역장이 40년 근속 감사패와 함께 부상으로 영문의 감사장패를 받았다.

김진수 사장은 "40년 세월 동안 부산일보와 인연을 맺어 왔다는 것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역의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본사 지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지역장들은 "부산일보와 함께한 세월 동안 큰 자부심을 가져왔다"며 "기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지탱해오지 못한 것까닭 앞으로 더욱 열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 부산일보, 9월 13일, 21면



부인여성대학 동문회 38대 회장단, 장학금 전달

부인여성대학 동문회 제38대 회장단(대장 남준숙·왼쪽 네 번째)은 3일 부산일보 대외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 500만 원을 김진수(왼쪽 세 번째) 부산일보 대표이사 사장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남준숙 회장과 김경자(왼쪽 두 번째), 정영숙(왼 번째), 권경희(왼쪽 다섯 번째) 부회장, 장인자(왼 오른쪽) 총무 등이 참석했다. 부인여성대학 동문회는 1983년부터 38년간 우연의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다. 현재 3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 회장이 가장주부인 부인여성대학 동문회는 부산일보 대외원 자녀 장학금, 주에 보육원 자원봉사 및 활동, 상권 견학, 여대 동 연인연행 연인행사 등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우연의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남 회장은 "부산일보와 인연으로 함께하는 부인여성대학 동문회가 작은 힘을 모아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올해 코로나19로 여대대학 수업이 열리지 않고 원격지도 하기 어려워 아쉽지만 모두 건강하게 코로나를 이겨 다시 만남을 기약하고 동문회 지원의 봉사활동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 부산일보, 10월 6일, 21면

또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과 함께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동일스위트 김은수 대표도 사회면이 아닌 '사람과 이웃'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9월 29일 김은수 대표가 관광의 날 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는 동정을 실었다. 이어 9월 30일에는 온라인 기사를 통해 "동종업체들 대부분이 구조조정이나 무급휴직을 통해 손실을 줄이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 치고 있지만 "김은수 대표는 부친인 김종각 회장의 제안으로 ... 정상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며 동일스위트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했다.



△ 부산일보는 창간 75주년에 맞춰 '나를 위한 뉴스 서비스'를 도입했다. 위 캡처 화면은 활동가에게 추천해 준 '김은수 대표 국무총리 표창장 수여' 소식이다.

국제신문 10월 13일 6면 <언론노조, 부산일보 사장 수사 의뢰> 역시 기자회견과 수사의뢰라는 발생에 초점을 맞춘 기사였다. 지면기사보다 온라인기사에서 더욱 상세하게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해 사안을 전달했다. 6면 모퉁이에 배치한 점은 아쉬우나, 사회면에 기자회견 사진을 첨부했다는 점에서 눈에 띄게 하는 편집이었다.



△ 국제신문, 10월 13일, 6면

사건 소식 아닌 구조적 접근 필요하다

10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부산지역언론 5개사 중 3곳에서 부산일보 사장과 건설사 대표 간 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9월 5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엔 한 건의 보도도 없었던데 비하면 나아졌다. 하지만 기자회견과 수사의뢰라는 단순 사건 소식으로만 전해 여전히 아쉽다.

MBC 스트레이트 <건설과 언론의 수상한 거래>는 부산일보도, 동일스위트도 아닌 기장군 일광면 옛 한국유리 공장 부지 앞에서 보도를 시작했다. 이어서 그 개발사업에 대한 부산시, 주민단체,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런 점에서 지역언론도 동일스위트가 부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점검하거나 이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입장 하다못해 이번 의혹에 대한 지역민의 반응 등을 취재할 순 없었는지도 아쉬움이 크다. 의혹의 당사자인 김진수 사장의 입장조차 MBC 스트레이트에서 소개한 수준에 그쳤다.

무엇보다 언론과 지역유력인사의 연결 고리로 지목된 CEO아카데미에 대한 취재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의혹이 언론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부산일보의 독자위원회 64%가 기업인이고 부일CEO 아카데미 원우들도 지역 고위공무원, 기업인, 정치인으로 마찬가지다. 지역의 유력 일간지라는 부산일보의 독자위원회와 부일CEO아카데미 그 어디에도 평범한 부산시민과 노동자 목소리가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그렇기에 언론과 건설사의 유착 의혹을 가능케 한 구조적 문제를 조명해야 한다. 단순 발생 소식으로 전하기엔 구조적 문제가 크다.